

News

코로나 금융지원 250兆 돌파...부실 방지 '고심'

한국경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250조원을 넘어서... 대출 만기 연장이 110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아...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검토...채무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진행...

빅테크 플랫폼서도 금융계좌 개설 가능

매일경제

전금법 개정안 발의... 빅테크 업체에서 만든 금융플랫폼을 통해서도 계정을 발급받고 각종 금융 계좌 기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금융플랫폼에서도 은행 계좌에 가까운 '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변화"

오늘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 규제...규제 전 마이너스 통장 개설 '역대 최대'

이데일리

30일부터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 집을 사면 대출을 다시 반납해야... 은행에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에도 DSR이 적용 규제가 도입이 예고되면서 가수요가 몰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수가 급증...

핀테크 기업 질주에 해외송금 직격탄...은행 경쟁력 강화 특명

데일리안

주요 시중은행의 개인 해외송금 규모가 크게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핀테크 업체가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데 따른 것으로 관측... "해외로 송금하는 고객에게 얼마나 더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

선지급? 분할지급? ... 보험설계사 내년 수수료 완전히 바뀐다

머니S

생보사들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 개정 내용을 통지...선지급형과 완전분급형 비율 조정 등 2~3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선택권을 부여... "GA 같은 경우 각각 GA들이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아직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GA시장 합종연횡 본격화? ...신한금융플러스, 업계 5위 리더스금융 인수 추진

서울경제

신한금융플러스가 GA 업계 5위인 리더스금융판매 인수를 추진...내년부터 본격화될 GA 시장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형급 이하 GA들이 매물로 나오면서 GA 시장의 재편 속도도 빨라질 것"

"영업점 누가 오나"...호황에도 점포 문닫는 증권사들

e대한경제

증권사들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지점들의 감소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최근에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MTS 등 비대면 채널로 주식 거래를 하는 비중이 높아 지점들이 많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

등급강등 속 중형증권사 'AA급' 도약 '눈길'

이데일리

코로나19로 주요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잇따라 떨어져... 중소형증권사의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 교보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더블에이급으로 올라서... 기관들이 AA급을 주 투자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량채와 비우량채로 나뉘는 주요 기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